☞ 17면에서 계속

말·뜻·행이 함께 에너지로 化해야

그렇고 바쁘지 않을 때는, 시간에 쫓기지 않을 땐 둥글려서 놓고 삼 배를 지극하게 하세요.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전의 수행자들이 몸뚱이로 많이 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법을 알라. 몸뚱이 고생을 하다가 몸뚱이 떨어지면 그 행도 떨어지느니라." 이러셨거든요. 영원한 자기를 습득을 하고 그걸 깨우쳐야지 몸뚱이로만 단련을 한다면 몸뚱이 떨어지면 그 단련하면 것도 떨어진다 이 소립니다. 송장이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다 꺼내어 쓸 수 있는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눈물의 의미는

문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지장보살을 세 번하고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친척집에 전화를 거니까 친척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 또 그런 일이 수 차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답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는 없어지고 사대로 흩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이 댁의 마음하고 결부가 되니까 녹아버리는 겁니다. 둘이 아니게 녹아버리는 까닭에 눈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것이 봄이 오는 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면 그냥그냥 녹습니다. 그러니 고드름이 녹아서 물이 떨어지듯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녹아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저하면 주저하는 대로 한 발 떼어놓지 못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대신에 부탁할 것은, 겸손하세요! 안다고 해서 나서지 마세요.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 사람은 발을 드문드문 떼어놔요. 아는 사람은 모르는 척 하고, 남이 알고 뭐 이런다고 법석을 해도 모르는 척 하고 옆에서 구경만 하는 그런 태도죠. 겸손함을 가지세요. 정히 니 앞에 일이 닥쳤을 때 진짜로 말 한마디 허 줄 수 있는 거는, 그 말이 말 한마디로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법에 접촉이 돼야 한다고 할까요? 이거는, 즉 말과 뜻과 행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에너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말로만 가서 안 되고, 에너지와 말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법에 접촉이 돼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을 한마디 누구에게 해줄 때 그 말이 법이 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찾아와서 꼭 대답을 해 달라고 합니다. 대답을 해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난 듣기만 하면 됩니다. 왜? 건방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고만 가면, 용건만 얘기하시고 자기한테 딱 놓고 믿으신다면 그게 백발백중이지만, 말의 뜻도 모르고 대답만 해 달라고 애를 쓰신다면 그거는 될 노릇이 아니겠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있어요. '아이구, 병원에서도 내버린 건데 이거는 할 수 없어. 절에서 무얼 해? 그런데 남의 소릴 들으니깐 뭐 그냥 정성들이고 그러면 된다는데.'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죽든 살든 난 당신을 믿는다. 너무 늦어서 죽더라도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 태세를 갖는다면 죽든 살든 뭐 결판이 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일체가 다 그래요.

모든 걸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생각해서 대답한 거지 저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소릴 들으셨습니까? 저 해가 그냥 비춰주고 있는데 해더러, 나 지금 방에 앉았는데 추워죽겠으니 햇빛 좀 이 방으로 들여보내서 뜨뜻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대답해 달라고 그러면 대답해 주겠습니까? 저 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고도 그렇고, 스스로 눈물이 나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이 나는 것도 그렇고, 좋게만 생각을 하세요. 꿈은 얼토당토않게 꿨는데 좋게 그냥 생각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다가 규정을 해놓은 게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거기다 붙이면 됩니다. 이 오묘한 마음의 법칙을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수행 아닌지요

문 저는 스님 법문을 1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공부해 오신 것처럼 유생 무생이 한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밤중에 산에도 가보고 묘지에도 가봅니다. 또 TV를 보면서도 무심을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잘못된 수행인지 아닌지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답 그렇게 하다가 허약해서 몰로 보면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험을 하시려고 그런다면 모습으로 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가오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체를 다 한 군데에다만 놓으시고 한 군데서 나오는 줄 아셔야 됩니다. 한 구멍으로 일체를 넣고, 한 구멍에서 일체가 들고난다는 거를 아시면, 모두가 한 군데서 나오고 한 군데로 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놈도 그놈이고, 체험을 하게 하는 놈도 그놈입니다. 결국은, 그게 아직 납득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선 한 군데로만 하세요. '너만이 체험을 하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할 수 있어.' 하고 모든 거를 그 자리에 맡기셔야 합니다. 일체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모두 말입니다. 그래야 옛날의 선지식들이 바다를 삼키고 바다를 토했노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도 알 수가 있겠죠. 토해서 중생들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귀를 띄워주고 또는 눈을 띄워주고 모든 자비를 베풀어주었다고 하는 그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가 한 군데로 나고 한 군데로 드는 것이라는 걸 진짜로 믿고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육신의 옷을 벗으면…

문 제가 공부하는 도중 의정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우리가 한 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하는데 그 의식은 한 점의 불씨로 분리되는 것 인지요, 아니면 한마음 바다에 그냥 있는 것 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답 꽃씨가 떨어져서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연어가 자기 몸뚱이를 또 다시 형성시켜놓고 죽듯이 자기 껍데기 한 옷을 벗으면 새 옷을 다시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오듯 그렇게 한 찰나에 돌아갑니다.

알고 보면 생사가 둘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해서 차원이 높으면 차원높은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그래서 소천세계 · 중천세계 ·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철에 차원이 높아서 한 발을 벗어 놨다면 우리는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껄껄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도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마치 정맥 동맥이 같이 돌아가듯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자기를 진짜 부처로 만드실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 편견 없애려면

문 스님, 저희 집은 오래 전부터 성당에 다녔습니다. 저는 마음에 닿지 않아서 잘 가지 않았지만 어머님은 굉장히 열성적이십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몸이 편찮으신데 다른 신앙인들이 편견을 갖고 있듯이 불자인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천주님이 이름만 다를 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고 완고하셔서 마음의 문을 닫으시고 기복으로 기도만 하시는데 제가 한 마음 주인공에 관해도 이것이 공부가 짧아서 그런지 어머니 병환이 차도가 없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 한생각으로 아량을 베풀면 나으실 수도 있는 문제겠죠.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어머니 쪽에서 생각으로 그렇게 나와 상대로 둘로 보시니까 그릇이 없어서 담기지 않는 격이죠. 그러니까 병이 낫지를 않는 겁니다. 아드님이 아무리 줘도 받질 않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해외에 나갔을 때 종교를 믿는다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모두가 상대를 믿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든 카톨릭교든 불교든 모두가요. 근데 불교라는 것이 원래 그대로가 다 진리거든요. 불은 일체 생명을 불(佛)이라고 하고, 일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돌아가고 말과 말이 통해서 돌아가고 통신과 뜻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 교(敎)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떠한 종교를 불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안에 전체가, 불교가 진리니까 불교 안에 전체의 종교가 있는 거지, 불교가 어디 따로 있어서 머리 깎은 사람들만 믿고 공부하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더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몸이 나무라면 주처의 뿌리는 어머니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 마음 속의 그 주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바깥으로 찾지 마세요. 주님이 나한테 있다. 내 안의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서 낫게 할 수 있으니 안으로 찾으세요.' 라는 것만 일러드리세요. 그러면 대번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체가 한곳으로 들고 또 한곳에서 나오는 것

소천 · 중천 · 대천세계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卍 대창 목재 대창 불교 건축

- 사찰 대웅전 건축 전문 업체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 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 하실 스님 상담 환영

* 태백산 일대에서 벌목한 육송

- 판매 종류규격
- 연목 : 12자~24자까지 5치~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자 2치
  18자 : 1자 ~ 1자 8치
  20자, 24자] 1자 ~ 1자 8치
  30자 : 1자 ~ 1자 7치
  36자, 40자] 1자 ~ 2자까지

준양목 / 적송

- 기둥 · 도리 · 대들보 · 일주문 기둥

※ 원하시는 치수로 제작 가능합니다. 주문 연락 주십시요.

(주) 대창종합개발

대표전화 본사 02)595-1573 FAX 02)595-1575
제1공장 054)781-4989 FAX 054)781-5989
이종봉 합장 H·P 019)327-0374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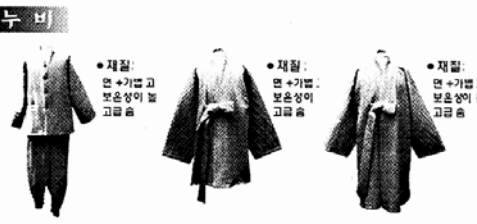
– 해동승복 직원일동 –

추동복



1.중방 · 바지 조끼 w160,000 (재질: 모직(울50%)) / 2.중방 · 바지 w160,000 (재질: 모직(울50%)) / 3.두루막 w140,000 (재질: 모직(울50%))

누비



4.중방 · 바지 : w200,000 조끼 : w60,000 / 5.중방 · 바지 : w220,000 / 6.두루막 : w160,000 (재질: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품)

잔누비 / 조끼·움베



7.저고리 : w60,000 바지 : w70,000 (재질: 면+가볍고 보온성이 높은 고급품으로 흠뻑이게 누볐음) / 8.조끼+움베 w60,000 (재질: 면이고 질감 적인 고급 재질)

※ 장삼, 가사, 바랑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횡단)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살아있어서 생식입니다

생식마을

건강되찾기 10년



임준규 한의학 박사
분당 차병원 한방병원 원장 역임
남원 소림 한방종합병원 원장 역임

추천서 10여년을 생식만 연구해 왔습니다. 몸을 생각하는 100% 자연식입니다. 고을빛 생식은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계약 재배한 깨끗한 재료를 이용해 고을빛, 생식만의 노하우로 배합해서 생산합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고을빛 생식을 찾으십시오. 분당 차병원병원 등에 환자식으로 공급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생식을 원하신다면 이제 전문업체인 '고을빛 생식'을 이용하십시오.

생식의 1석 6조
1.체질개선 2.건강증진 3.피로회복] (생식요법) 4.완전한 다이어트 5.완전식사 6.식습관 개선

이런분들에게 필요합니다
- ◆ 고통 없이 체중조절을 하실 분께
  저칼로리 영양식으로 굶어야 하는 고통없이 체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 아침식사(생식)는 활력의 원천
  간편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식사대용으로 최적입니다.
- ◆ 배변이 원활하지 못해 더부룩한 분들께
  치커리 식이섬유 보강. 쾌변을 도와줍니다.
- ◆ 신선한 야채섬유가 부족한 분들에게
  생식의 풍부한 효소와 배아, 엄목소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 각종 성인병으로 식이 요법을 원하시는 분들께
  생식의 고효율 에너지는 병환중이거나 회복중인 환자식으로도 좋습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태어난지 10년된 정통 전문 생식업체입니다.

※ 1개월분(40g × 60포)입니다. ※ 4개월분 구입시 25% 할인해 드립니다.
고을빛 생식마을은 19만명의 고객이 체험으로 전하는 검증된 제품입니다.

생식 완료: 현미, 메추콩, 적두, 약콩, 서리태, 율무, 보리, 차조, 수수, 옥수수, 대맥, 밀, 당근, 우엉, 신선초, 케일, 참프리, 감잎, 홍삼, 강, 호박, 솔잎, 다시마, 칡, 구기자, 연근, 프로바보, 인진쑥, 결명자, 결정과당, 효박액기스 등 32종

◆ 연락처 : 02)458-0836 017)236-0836

전국지점 및 대리점 모집중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 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